

유사복음, 유사설교

효자제일교회 전도사·홍 순관

이 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중용히 이르시되 너희의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의 너희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개역, 누가복음 10:21~37]

여 러분들이 학교 다닐 동안 교장선생님이나 아니면 담임선생님께서 들려주셨던 좋은 훈화가 기억이 나는가 더듬어 보십시오. 혹은 그 훈화 한 편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변화되었다거나 그 때문에 내가 이런 생을 살게 되었다고 고백할 만한 그런 교장선생님 이야기나 담임선생님의 이야기가 기억에 나는지 더듬어 보십시오. 사람에게 따라서는 그런 훈화 한 편이 인생을 바꾸어 놓은 예가 종종 있습니다. 제게는, 섭섭하지만 없습니다.

재미 삼아서 같은 방에 있는 전도사님더러 혹시 학교 다닐 때 생각나는 훈화 있느냐고 그랬더니 하나 있답니다. 뭐냐 그랬더니 교장선생님의 학교 운영방침이 절대 정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정숙'이라고 액자를 만들어 걸어 놓고 그랬대요. 그런데 자기 담임선생님은 친절하게 절대 정숙을 우리말로 풀이해 주었답니다. 절대 정숙을 교장선생님이 하도 강조하니 담임선생님이 우리말로 풀이해 주었는데 간단합니다. '떠들면 죽는다' 생각해 보면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참 비극입니다. 그 좋은 학창 시절에 인생의 등대가 될 만한 교훈 하나없이 지냈다는 것이 얼마나 비극입니까?

제가 중고등학교 다 거칠 동안, 심지어 대학을 마칠 때까지 교장선생님이 내게 해준 쓸만한 이야기는 기억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 기억나는 훈화(?)가 있긴 있습니다. 아마 그 해 12월 24일이 월요일이었던가 싶은데 제가 다니던 학교에서 토요일에 방학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2일이 방학이 되죠? 시내 교장선생님들이 모여서 "다른 학교는 다 24일 방학하려고 하는데 우리 학교만 22일 방학을 하면 우리 입장이 좀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서 월요일날 같이 방학하자" 그렇게 교장선생님들끼리 이야기를 했나봐요. 토요일이 아니라 금요일날 아침에 우리 교장선생님께서 학생들을 운동장에 다 모아 놓고 하시는 말씀이 "나는 22일날 방학하고 싶은데 시내 교장선생님들이 24일 하자고 한다. 내가 방학을 하루 당긴다고 해서 제군들이 공부를 안 할 겁니까?" 하잖아요. 난리가 났죠. 고함을 지르고 박수를 치고... 교장선생님이 한 술 더 떴습니다. "잘 할 것이라고 믿고 방학을 하루 더 당기겠습니다" 금요일에 방학을 해버렸습니다. 정말 난리 났습니다. 아이들이 우리 교장선생님 멋쟁이라고...

섭섭하지만 중고등학교 6년 동안 교장선생님이 남겨놓은 기억이라곤 이것 뿐입니다. 이게 훈화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방학을 하루 당겨준다고 공부를 정말 더 했겠습니까마는 대답은 그렇게 하는 거죠. 정말 기억에 남아서 내 인생에 어떤 변화를 주었을만한 이야기가 전혀 없다는 것은 참 비극입니다. 아마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선배 한 분을 만났는데 이 분이 참 걸작인 것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는 모임을 하나 만들었더군요. 고향친구, 중고 동창들, 군에 가서 만난 사람들, 대학 선후배들 이런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다 초대해서 모임을 가졌더군요. 그 모임을 위해서 자기의 프로필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 내용 가운데 뭐가 있느냐 하면 '교장선생님이 내게 끼친 영향'이라면서 그 교장선생님이 남긴 훈화들을 종목별로 제목을 꼭 적어 놓은 겁니다. 한 두 편이 아니라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어떤 훈화는 저도 내용을 압니다. 왜냐하면 출판이 되었거든요. 그 중에 어떤 것은 우리가 많이 듣는 말인데 그 제목을 가지고 교장선생님이 어떤 훈화를 했다는 것을 졸업생들이 기억하고 있더라구요. 자기 혼자 기억하면서 제목을 적어 놓은 것을 보니까 수십편이 돼요. 중고등학교 시절 교장선생님의 훈화를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삶이 얼마만큼 아름다운 것인가 감동스러워지더라구요.

여러분, 감동적인 훈화 한 편이 인생을 바꿔 놓기도 합니다. 제대로 기억할 만한 훈화 하나 없는 학창시절은 얼마나 불행합니까? 별로 느끼지 못하지요? 작은 손해는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지만 진짜 큰 손해는 느끼지도 못합니다. 제 기억에 학교 훈화는 없지만 은혜로운 설교가 많이 있습니다. 훈화대신 설교가 제게 큰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SFC 수련회 열심히 다니면서, 고민도 많고 걱정도 많은 시절에, 목사님의 제대로 된 설교 한 편의 영향력이 일 년은 가더라구요. 참으로 고민하고 힘들어 할 때 설교 말씀이 힘을 주는 경우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여러분, 학교 아이들을 학교에 부지런히 보내서 공부 열심히 시키는 것 잘 하는 일입니다마는 그 아이들의 인생 방향을 결정지을, 가슴 속에 평생 간직할 만한 중요한 교훈이 적어도 중고등학교 6년동안 한 편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사실을 두려워하며 기억하십시오. 설교 한 편으로 그 아이 인생을 바꾸어 놓을 가능성이 교회 안에서 많이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학교에 아이들을 너무 맡겨 두지 마시고 제가 지금 하는 훈화 이야기를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을 시켜보면서 어쨌든 교회에서 좋은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아이들을 부지런히 예배에 출석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가령, 아주 유명한 훈화의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참 재미있는 이야기이지만 아주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교장선생님이 한 이야기라고 가정하십시오.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벌과 같은 사람, 개미와 같은 사람, 거미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벌과 같은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해서 사람들에게 꿀을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남에게 유익을 끼치는 사람입니다. 개미는 벌과 마찬가지로 열심히 일을 하지만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을 주지는 않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지만 결국은 자기 자신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인간입니다. 벌과 같은 인간은 반드시 필요한 인간입니다. 그러면 개미는 있으나 마나한 인간을 가리킵니다. 반면에 거미 같은 인간이 있습니다. 거미는 어두컴컴한 곳에 거미줄을 쳐 놓고 걸려드는 곤충을 잡아먹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해치는 사람입니다. 이런 인간들은 없어져야 할 인간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 무엇과 같은 사람이 되겠습니까? 모두가 벌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교장선생님이 이렇게 훈화를 하면 멋지죠!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아이들이 '아, 벌과 같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인간이 되어야겠다'고 생각을 하게 한다면 1급 훈화입니다. 현실은 불행하게도 이 정도의 이야기도 우리 아이들은 듣고 자라지 못합니다. 이제 우리 이야기를 합시다. 그런데 이런 훈화를 잘 듣고 '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이 아이가 구원을 받을까요?

.....

이건 대답하셔야 합니다. 이 아이가 구원을 받을까요?

못 받습니다.

못 받습니까? 확실히 이 이야기는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얘기를 조금 바꾸어 봅시다. 교장선생님이 그런 이야기를 학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서 아이들을 모아 놓고 교회에서 교장선생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아이들이 구원을 받을까요?

안됩니다.

그래도 안됩니까? 그러면 교장선생님 대신에 목사님께서 아이들을 모아 놓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아이들이 구원을 받을까요?

안됩니다.

그것도 안됩니까? 그러면 설교를 한번 해봅시다. 목사님께서 교회에서 설교시간에 오늘 우리가 읽고 이 본문을 꼭 설명한 다음에 다음과 같이 설교의 결론을 맺습니다.

세상에는 세 종류의 인간이 있습니다. 강도 같은 인간이 있습니다. 이런 인간은 없어져야 할 인간입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과 레위인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있으나마나한 인간입니다. 반면에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사람이 됩시다.

성경을 펴놓고 목사님이 교회에서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이런 설교를 계속해서 많이 들으면 구원을 받을까요? 설교인데요? 성경을 펴놓고 하는데요? 아니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이런 설교를 계속해서 들으면 구원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

대답을 잘 하시더니 이제 좀 고민이 되십니까? 고민하실 것 없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교장선생님의 훈화 이야기와 이 설교는 어때요? 똑같습니다.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목을 왜 유사설교라고 붙였는지 아십니까? 짐작하시죠? 유사하다는 것은 비슷하다는 것이죠. 설교 비슷하다는 얘깁니다. 감히 단언컨데 설교하고 비슷하지만 이진 엄밀하게 말하면 설교라고 하기가 곤란하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만한 설교가 못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설교의 출처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근거로 설교 시간에 목사가 설교를 했음에도 이것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지 못하는 이유가 뭘니까? 면밀하게 살펴서야 합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서 따 왔다고 할지라도 그 설교 속에서 예수님의 구원사역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안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설교에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요소가 반드시 들어 있어야 합니다. 너무 좁게 범위를 잡은 셈이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그래야 그것을 설교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넓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계획을 갖고 세셨고 그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대상, 즉 인간이 어떤 존재냐를 설명해 주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꼭 필요한 것이 예수님의 고난이요 희생이었더라는 것을 부분적으로라도 아니면 전혀 언급하지 않아도 그 밑바탕에 그 정신이 꼭 깔려 있어야만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설교가 됩니다. 그것이 빠져 있을 때에는 아무리 듣기에 좋은 듯 싶어도 설교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좀 전에 말씀 드렸던 그 선배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교회에 다닌대요. 그리고 목사님께서 설교를 정말 잘 한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자기 교회 목사님은 일주일에 낫 설교 딱 한 번 그것 외에는 아무 것도 안 한답니다. 그것만 잘 해서 방송에도 많이 나온대요. 설교를 얼마나 잘 하는지 모른다고 하도 자랑을 하길래 듣고 배우게 보낼 수 있거든 테이프 좀 보내 달라고 했더니 잘 부쳐 주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통씩 테이프 다섯 개 정도 들어간 것을 꼬박꼬박 부쳐요. 그래서 제일 먼저 온 것 하나를 한 번 듣고 나니까 나머지 것을 듣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만 부치라고 할러니까 미안하기도 해서 이 만큼 제어 놓았습니다. 뭔가 한마디 해 주긴 주어야겠는데 어쩔까 고민 중입니다. '정말 잘 조직되었고 정말 깔끔하고 정말 세련된 설교다. 그런데 영양가가 없다.' 그런 말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한국에서 최고가는 설교가라고 칭찬을 잔뜩 하는데 포항 춘구석에 있는 전도사가 간이 굵어도 많이 굵지요? 영양가가 없는 것을 계속해서 먹으면 영양 실조 걸릴 소지가 있습니다. 가만히 혼자 생각해 보니까 이게 진방저도 보통 진방진 게 아니더라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그러나 분명히 그 설교는 영양가가 없는 설교이고 계속해서 들어서 될 설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것은 몰라도 정말 그 정도는 분간할 줄 압니다. 설교에 영양가가 있느냐 없느냐는 스스로 분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천국 문 앞에 섰을 때에 누가 여러분의 보증이 되어 줍니까?

예수님.

당연히 예수님 때문에 들어갑니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께 친히 배운신 분은 괜찮습니다만 목사님께 복음을 전해 듣고 잘못 배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목사님이 와서 내가 잘못 가르쳐서 문제가 되었으니까 저를 벌주시고 저 분은 좀 넣어주세요. 얘기가 됩니까? 예수님 이외에 어느 누구도 천국문 앞에서 나를 보증서 줄 사람이 없습니다. 목사님이 가능합니까? 나는 열심히 목사님 말씀 듣고 따랐는데 목사님이 잘못 가르쳐서 그렇습니다. 핑계가 됩니까? 우리나라에서 최고가는 설교가가 나를 가르쳤다고 해도 그 분이 천국문에서 내 보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그 분이 과연 거기에 오거나 올라가는 생각이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리 건방지다 어쩐다라는 말이 나올지라도 적어도 생명하고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이것이 제대로 된 것이냐 안된 것이냐를 따질 수밖에 없습니다. 콩나물에 농약이 좀 들었다고 왜 그렇게 난리를 칩니까? 들었으면 얼마나 들었다고 그래요? 실제로 계산해보면 지극히 적은 양일 뿐이지만 생명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들 예민하게 ‘죽일 놈, 살릴 놈’ 하지 않습니까? 한 백년 살다 가는 육신에 조금 영향을 끼치는 것 가지고 그렇게 난리를 치면서 영원한 생명의 양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렇게 관대합니까? 저를 보고 건방지다고 말씀하시는 분은 오늘부터 콩나물 농약 가지고 방방뜨지 마십시오. 저는 적어도 농약이나 오염에 신경쓰지 않고 아무 것이나 잘 먹기 때문입니다.

저 자신의 얘기일 뿐만 아니라 성도 여러분 각자 각자에게 다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되게 건방진 전도사 하나 있다.’ 해도 좋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건방진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문제가 걸려 있는데 건방지다 소리를 무서워 할 형편이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세월이 되어서 들을만한 설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텔레비전 틀어도 항상 나옵니다. 인터넷 들어가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책방에 가면 설교집은 넘쳐납니다. 목사님 설교니까 다 좋은 것 이다? 아뇨! 들으면서 이 설교는 나를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을만한 설교다, 이것은 형식상으로는 아주 잘 된 설교지만 내용은 아니다 정도는 분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설교인 듯 한데 잘 들여다 보면 설교라고 하기 곤란한 설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천국 문 앞에 섰을 때에 누가 보증을 선단 말입니까? 여러분들을 잘못 가르쳐서 그렇게 되었다고 대신 벌서겠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올바른 설교를 분간해서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뭡니까?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눈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가져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 사람의 말은 이상하다? 그 사람의 타이틀에 매이지 마십시오. 그 분이 어느 대학에 가서 신학을 얼마나 배웠고, 얼마나 훌륭한 목사고, 어떤 큰 교회의 담임목사이고, 유명한 부흥사이고... 그 타이틀을 믿지 마십시오. 왜요? 신학자들 중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신학자들이 대단히 많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내가 듣고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그게 안되면 그래도 건전하다고 하는 교단을 찾는 게 그 다음 순서죠.

좌우간 우리는 성경을 바르게 배우고 열심히 배워서 스스로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주일에 쉴 시간이 없이 교회에 모여서 공부하고자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열심히 공부하는 분들은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익혀서 적어도 이것을 분간해 낼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필히 당부합니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모르긴 몰라도 이것 가지고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자세히 한 번 봅시다. 이 이야기에 무슨 영양가가 그렇게 많아서 다들 잘 기억하고 이 이야기를 가지고 설교를 많이 했을까요? 이 이야기를 읽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받은 영양가가 가령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아야 되겠구나 외에 뭐 있습니까? 괜히 은혜를 잘못 받아서 ‘우리 목사님은 여기 나온 제사장을 닮았나?’ 이러면 더욱 문제가 되지요. 그것 말고 또 무슨 영양가가 있는지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은 어떤 율법사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물었기 때문입니다. 이 율법사

가 예수님께 질문해서 배운 게 뭐니까?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운 것이 뭔지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무엇을 물었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느냐고 물었는데 예수님이 하신 답변이 이 율법사가 알고 있는 것입니까 모르는 겁니까? 자기가 물어 놓고 대답은 누가 합니까? 자기가 하잖아요. 예수님은 그냥 '그래 그렇게 하면 되지'라고 동의를 표하는 것 뿐입니다.

이 율법사가 하나 더 물었습니다. 뭘 물었죠? 29절에 한 번 보세요. 묻는 의도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자기가 자랑을 하려고 묻는 겁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거든요 예수님의 답변이 뭐니까? 이 이야기를 길게 한 다음에 다시 거꾸로 묻습니다. 이 중에 누가 네 이웃이냐? 율법사가 압니까 모릅니까? 끝에 한 번 보세요. 37절에 **자비를 베푸 자이니이다**라고 답합니다. 이게 누구의 말입니까? 율법사 얘기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율법사가 알고 있는 겁니다, 누가 내 이웃인지.

이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두 가지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준 것이 뭐니까? 가르쳐 준 것이 없습니다. 이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한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쳐 준 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자기가 뻔히 알고 있는 이야기를, 아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얘기를 확인시켜 준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왜 그렇게 유명하고 왜 설교의 주제가 많이 되었느냐는 말입니다. 저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좀 전에 제가 짤막하게 인용한 이야기는 다 설교 시간에 들은 것입니다. 실컷 듣고도 은혜가 안되더라구요.

그런데 이 얘기 전체가 노래로 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출을 하고 애들 데려다가 연극도 했습니다. 강도 역할을 제 동생 중에 하나가 했는데요 강도라는 것이 참 맥없이 '야, 돈 내 놓아라 돈!' 하길래 제가 뒤에 앉았다가 '야! 강도가 어째 그 모양이냐? 차라리 돈 빌려달라 해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페레타라고 노래 부르면서 연기를 했는데 참 재미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전혀 기쁘지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율법사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분이 어떠했을까 하는 걸 살펴봅시다. 본문을 길게 잡아서 미안합니다. 그 앞부분부터 읽은 이유가 있습니다. 앞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서 전도를 시켰는데 전도하고 돌아온 후에 이 제자들이 자기들이 한 일에 대해서 다 기쁘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가지고 더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그 뒷부분을 보십시오. 21절에 **'이 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냄을 감사하나이다'**

여기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24절까지 예수님께서 감사의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어떤 느낌이 드세요? **'성령으로 기뻐하사...'**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이 아주 많습니다. 어떤 느낌이 드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성령에 취해서 말이 쿵쿵 나오는 듯합니다. 술에 취하면 말이 많아지죠? 그걸 일일이 대꾸하려면 참 힘들어요. 술 취한 사람은 했던 이야기 또 하고, 했던 이야기 또 하고, 얼마나 말이 많은지 모릅니다. 성령에 취해도 그런 경향이 좀 있나봐요. 예수님께서 술에 취해 기분 좋은 사람처럼 성령에 취해 기뻐하고 계시는데 율법사가 와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예수님께는 죄송합니다마는 술 먹는 사람의 표현을 빌린다면 '술이 확 깨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기분 좋아서 이려고 있는데 완전히 기분 잡치게 하는 얘기를 이 율법사가 한 겁니다.

율법사가 왜 찾아왔을까요? 시험하려는 뜻도 있고 자기를 좀 나타내려는 의도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이 놀라운 일을 하고 난 후에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정말 기뻐해야 될 것은 너희들이 하늘에 기록된 것 이걸 기뻐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권세 가진 사람들을 놓아두고 이 어린아이 같은 제자들에게 놀라운 복음을 보여주셨고 알려 주신 것, 이걸 예수님께서 기뻐하고 있는데 이 율법사가 와서 밥맛 떨어지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그렇게 유명하고 설교 주제로 많이 사용될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셨던 그 구절에 우리의 눈이 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는 것을 우리도 좋아해야 할텐데 많은 사람들이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더 좋아하고 있다는 것은 분별력에 문제가 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이 참된 그리스도인을 만들며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으로 이끌어 갑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만 계속하면 싫증이 나기도 하겠죠. 그것을 싫증이 나지 않도록 방향을 바꾸어 가며, 모양을 바꾸어 가면서 반복해야 합니다. 아무리 다른 이야기를 한다 해도 그 밑바탕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 죄의 용서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셨음을 증거하는 내용이 들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밥 많이 먹었다고 밥 먹기 싫은 사람 있습니까? 가끔 다른 것을 먹을 수도 있지만 결국은 밥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다른 것은 별로 흥미없고 밥만 잘 먹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같은 이야기를 되풀이 하면 싫어요? 연애중인 처녀총각이 하루종일 얘기하고 헤어져서 집에 가서 전화를 겁니다. 또 얘기해요. 할 얘기가 실제로 많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했던 이야기 또 하고, 또 하고... 가만히 들어보면 전부 별 의미가 없는 이야기들일 거예요. 남이 들으면 별로 우습지도 않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는데 옆에서 들어보면 눈썹시려울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이야기들의 내용보다는 밑바탕에 깔려있는 사랑입니다. 밑바탕에는 사랑이 들어있기 때문에 아무리 엉뚱하고 시시한 이야기도 계속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한마디 안해도 그것은 사랑한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싫증나지 않는 겁니다. 싸우고 있어도 그것은 사랑의 다른 표현이기 때문에 여전히 행복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은 모든 설교의 바탕이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고 이런 사랑을 베푸셨다는 사랑의 메시지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포장되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면 그게 싫증이 납니까? '설교 밑천이 그렇게 없나? 또 그 얘기 하나?'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절절히 느낄 때는 그 얘기가 반복된다고 밑천이 그렇게 없나 소리가 안 나올 겁니다. 오히려 아는 것을 계속해서 즐기는 수준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음악을 얼마나 좋아하느냐는 것은 그 사람이 레코드판을 얼마나 모았느냐는 게 아닙니다. 레코드판을 몇 백장씩 모았다고 음악 애호가라 아니라 진짜 음악 애호가는 반복해서 듣는 레코드판이 몇 장이나 그걸 따져야 합니다. '아, 이거 나 잘 아는 곡이야' 하면서 넘어가는 사람은 애호가라 아니라는 거죠. 잘 아는 음악을 반복해서 듣는 사람이 진짜 음악을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우리가 한, 두 번 듣고 '아, 잘 아는 말이다' 이게 아닙니다. 잘 아는 얘기지만 들을 때마다 새롭고, 감격스러워야 합니다. 물론 그렇게 되지 못하는 중요한 원인은 설교를 잘 하지 못하는 목사의 책임이 더 큼니다마는 듣는 성도들도 무엇이 영양가 있는 설교인지 분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부사이에 가끔 남편이 아내를 보고, 용기를 내야 이것도 가능하죠, '당신은 아침 이슬을 머금은 한송이 장미'했는데 부인이 듣고 '따, 시끄럽다!' 이러면 어떤 관계죠? 이렇게 되면 좀 문제 있는 겁니다. 나이 들어도 남이 보면 '참 웃기고 있네' 싶은 그런 소리 들으면서 기분 좋아하고 가끔은 속보이는 아양도 좀 떨고 그러는 게 부부 아닌가요? 좀 모자란 겁니까? 아니, 다른 데서는 안 그런데 부부사이 정도는 그렇게 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나이 드신 분들에겐 죄송합니다. 전혀 어울리지 않은 듯 싶어서요. 나이를 생각해서 밖에서는 점잖지만 아무도 몰래 이리하고 있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건 아름다운 일입니다. 부부사이엔 남이 들으면 웃기는 이야기를 자주 하는 사이여야 합니다. '세상에 당신같이 아름다운 사람이 어디 있냐?'고 하는데 '또 거짓말하고 있다!' 이진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뻔한 소리 또 한다고요? 그건 아닙니다. 문제는 똑같은 내용일지라도 우리가 듣기 좋도록 얼마나 요리를 하느냐는 것은 목사님의 몫이지요. 그러나 저것이 내게 진짜 중요한 이야기고 들어도 들어도 싫증나지 않는 소중한 이야기라 생각하고 마음에 잘 새기려고 하는 노력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셨던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길을 열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시고 그렇게 기뻐하셨는데 이 율법사가 와서 영 기분 잡치게 만들어 놓았던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우리는 뭘 보고 좋아합니까?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잘 알고, 재미있습니까? 뭔가 잘못되지 않았느냐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고 기뻐하셨느냐 그것이 우리에게도 기쁜 것이어야 합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설교를 할 때에도 복음의 핵심되는 내용을 잘 심어줘야 합니다. 좀 조심해야 하는 것은 ‘어린이 여러분, 착하게 살아야지요!’ 이게 잘못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근거가 무엇인지 잘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보통은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끝내죠. 그러나 우리가 착해야 하는 근거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으니 하나님 백성답게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으로 잘 연결시켜 줘야 합니다.

다음 네 가지 종류의 사람 중에 어느 부류가 제일 나은지 한 번 봅시다. 예수 믿고 선하게 사는 사람, 예수는 믿는데 선하게 살지 않는 사람, 예수는 안 믿는데 선한 사람, 예수도 안 믿고 선하지도 않은 사람? 네 번째는 괄호 밖이죠.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 믿고 선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데 별로 선하지 않는 사람과 예수는 안 믿는데 정말 선한 사람은 어느 쪽이어야 합니까?

예수 믿어야죠.

믿음을 강조하다 보면 ‘행실이야 아무리 나쁜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고 행실이 아주 좋은 사람’보다 낫다고 가르칩니다.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 조금 위험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잘 믿는 사람이 행실이 나쁠 수가 없습니다. 예수는 잘 믿는데 전혀 선하지 않다는 것은 불가사의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토록 사랑하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이 어떻게 행실이 나쁠 수가 있습니까?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가르쳐야 하는 목표는 ‘예수를 잘 믿고 선하게 사는 것’이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예수는 잘 믿는데 행실은 좀 나쁜 아이가 결과적으로 주일학교 교육의 목표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때 항상 그 말씀 속에 이 신앙의 핵심적인 요소를 잘 심어주어야 합니다. 혹시 실수하지 않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설교를 듣든지, 성경을 가르치든지 그 핵심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반드시 깔려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하나님, 예수님,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한마디도 없더라도 밀바탕에는 확실하게 깔아 놓은 채 메시지를 구성해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설교이고 진짜 복음이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 전도사가 건방지더라는 얘기는 하셔도 괜찮습니다. 아니, 전도사도 건방지고 성도들도 건방지기 이를 데 없다는 소리를 들을만큼 복음이나 아니냐는 것에 관한한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꼭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한 분도 낙오없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